

잡아함58 음근경

날짜: 1월 27th, 2024

출처: <http://www.dhamma.kr/wp/?p=1765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동쪽 동산에 있는 녹모강당(鹿母講堂)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해질 무렵에 선좌(禪坐)를 마치고서, 모든 비구들 앞에 자리를 펴고 앉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5수음이 있으니 무엇이 다섯 가지인가? 이른바 색수음(色受陰)과 수수음(受受陰) · 상수음(想受陰) · 행수음(行受陰) · 식수음(識受陰)이니라.”

이때 어떤 비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하고는 부처님께 여쭙었다. “세존이시여, 5수음이란 색수음과 수수음 · 상수음 · 행수음 · 식수음입니까?”

부처님께서 그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돌아가 앉아서 물어라. 내 너를 위해 설명하리라.”

그러자 그 비구는 부처님께 예배하고 다시 본 자리로 돌아가 부처님께 여쭙었다.

“세존이시여, 그 5수음은 무엇이 근본으로 되고, 무엇이 쌓이고 모이며, 무엇이 생기게 하고, 무엇이 부딪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그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그 5수음은 탐욕이 근본이 되고, 탐욕이 적집(積集)시키며,

탐욕이 생기게 하고, 탐욕이 부딪친 것이니라.”

이때 그 비구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기뻐하면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께서 5음(陰)을 곧 집착[受 : 取]이라고 말씀하시니, 참으로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다시 여쭙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음(陰)이 곧 집착[受]입니까? 5음과 집착은 다른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그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5음이 곧 집착도 아니요, 또한 5음이 집착과 다른 것도 아니다. 다만 거기에 탐욕이 있으면 그것이 곧 5수음이니라.”

“훌륭하신 세존이시여.”

그 비구는 말씀을 따라 기뻐하면서 다시 여쭙었다.

“이제 다시 여쭙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두 음(陰)은 서로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다, 그렇다. 마치 어떤 비구가 ‘나는 미래에 이러한 색(色), 이러한 수(受), 이러한 상(想), 이러한 행(行), 이러한 식(識)을 타고나리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으니, 이것을 비구야, 음과 음은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니라.”

“참으로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그 비구는 말씀을 따라 기뻐하면서 다시 부처님께 여쭙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을 음(陰)이라 합니까?”

“존재하는 모든 색(色)은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래에 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 안에 있는 것이건 밖에 있는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아름답건 추하건, 멀리 있는 것이건 가까이 있는 것이건, 그 일체를 통틀어 음이라 하나니, 이것을 음이라 하느니라. 수 · 상 · 행 · 식도 또한 그와 같나니, 비구

야, 이것을 음(陰)이라 하느니라.”

“참으로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그 비구는 말씀을 따라 기뻐하면서 다시 여쭙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因)과 연(緣)으로 색음(色陰)이라 하며, 무슨 인과 무슨 연으로 수음(受陰) · 상음(想陰) · 행음(行陰) · 식음(識陰)이라 합니까?”

부처님께서 그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4대(大)를 인(因)으로 하고 4대를 연(緣)으로 한 것을 색음이라 하나니, 무슨 까닭인가? 존재하는 모든 색음, 그 일체는 다 4대이거나 4대를 인연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접촉[觸]을 인으로 하고 접촉을 연으로 하여 수 · 상 · 행이 생기나니, 그러므로 이것을 수음 · 상음 · 행음이라 한다. 무슨 까닭인가? 존재하는 수 · 상 · 행은 모두 접촉[觸]을 인연하기 때문이다. 명색(名色)을 인으로 하고 명색을 연으로 하기 때문에 식음이라 하나니, 무슨 까닭인가? 존재하는 식은 모두 명색을 인연하기 때문이니라.”

“참으로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그 비구는 말씀을 따라 기뻐하면서 다시 여쭙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어떤 것을 색에 맛들임[色味]이라 하고, 색의 재앙[色患]이라 하며, 색에서 벗어남[色離]이라 합니까? 수 · 상 · 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며, 어떤 것을 식에 맛들임[識味]이라 하고, 식의 재앙[識患]이라 하며, 식에서 벗어남[識離]이라 합니까?”

부처님께서 그 비구에게 말씀하셨다.

“색을 인연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일으키면 이것을 색에 맛들임[色味]이라 한다. 만일 색이 무상하고, 괴로우며, 변하고 바뀌는 법이라면 이것을 색의 재앙[色患]이라 한다. 만일 색에

대해서 탐욕을 항복 받고, 탐욕을 끊으며, 탐욕을 초월하면 이것을 색에서 벗어남[色離]이라 하느니라.

수 · 상 · 행도 마찬가지로이며, 식을 인연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일으키면 이것을 식에 맛들임이라 한다. 수 · 상 · 행도 마찬가지로이며, 식은 무상하고 괴로우며 변하고 바뀌는 법이니 이것을 식의 재앙이라 한다. 수 · 상 · 행도 마찬가지로이며, 식에 대해서 탐욕을 항복 받고, 탐욕을 끊으며, 탐욕을 초월하면 이것을 식에서 벗어남이라 하느니라.”

“참으로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그 비구는 말씀을 따라 기뻐하면서 다시 여쭙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아만(我慢)이 생기니까?”

“어리석고 법문을 듣지못한 범부들은 색(色)에 대해서 ‘나다. 나와 다르다.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이다’고 보고, 수 · 상 · 행 · 식에 대해서 ‘나다. 나와 다르다.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이다’고 보나니, 여기서 아만이 생기느니라.” “참으로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그 비구는 말씀을 따라 기뻐하면서 다시 여쭙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면 아만이 없어질니까?”

“법문을 많이들은 거룩한 제자는 색에 대해서 ‘나다. 나와 다르다.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이다’고 보지 않고, 수 · 상 · 행 · 식에 대해서 ‘나다. 나와 다르다.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이다’고 보지 않느니라.”

“참으로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그 비구는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보아야 번뇌가 다하게 되겠습니까?” “世尊, 云何得

“존재하는 모든 색(色)은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래에 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 안에 있는 것이건 밖에 있는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아름답건 추하건, 멀리 있는 것이건 가까이 있는 것이건, 그 일체는 나도 아니요, 나와 다른 것도 아니며,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도 아니다. 수 · 상 · 행 · 식도 또한 마찬가지니, 비구야, 이렇게 알고 이렇게 보면 번뇌가 빨리 다하게 될 것이니라.”

그때 그 자리에 근기가 둔해 무지한 다른 한 비구가 있었다. 그는 무명(無明)의 껍질에 싸여 샅된 소견을 일으키고는 이렇게 생각하였다.

‘만일 나[我]가 없다면 나가 없는 업을 지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 세상에서는 누가 그 과보를 받을까?’

그때 세존께서는 그 비구의 마음속 생각을 아시고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대중 가운데 만일 지혜도 없고 밝지도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만일 색에도 나가 없고 수 · 상 · 행 · 식에도 나가 없다면 그는 나가 없는 업을 지을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그 과보를 받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만일 이렇게 의심한다면 먼저 그것을 해석하리라. 어떤가? 비구들아, 색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비구들은 대답하였다.

“무상합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무상하다면 그것은 괴로운 것인가?”

“그것은 괴로운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무상하고 괴로운 것이라면 그것은 변하고 바뀌는 법이다. 그런데도 많이 아는 거룩한 제자들이 과연 그런 것에 대해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와 다르다. 이것은 나와 나 아닌 것이 함께 있는 것이다’라고 보겠는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수 · 상 · 행 · 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비구들아, 만일 ‘존재하는 모든 색(色)은 과거에 속한 것이건 미래에 속한 것이건 현재에 속한 것이건, 안에 있는 것이건 밖에 있는 것이건, 거칠건 미세하건, 아름답건 추하건, 멀리 있는 것이건 가까이 있는 것이건, 그 일체는 나[我]도 아니요, 내 것[我所]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본다면, 그것은 바른 소견[正見]이니라. 수 · 상 · 행 · 식에 있어서도 또한 그러하니라.

이렇게 보는 법문을 많이 들은 거룩한 제자들은 곧 그것을 싫어하는 마음을 닦고, 싫어하는 마음을 닦은 뒤에는 탐욕을 떠나며, 탐욕을 떠난 뒤에는 해탈하고, 해탈한 뒤에는 해탈지견(解脫知見)이 생겨 ‘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섰으며, 할 일은 이미 마쳐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아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셨을 때, 많은 비구들은 어떤 번뇌도 일으키지 않고 마음이 해탈하였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본 문서는 dhamma.kr에서 수집한 내용입니다.